# 도마에 오른 임용시험 실기평가 공정성

제주 평가위원 5명이 모든 응시자 실기시험 평가 타시도 교육청은 종목별로 평가위원 달리 하기도

속보=제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의 합격자가 뒤바뀐 일로 실기시험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본보 11일자 4면 도교육청 '합격→불합격'사과 했지만… 공정성 논란 야기)되면서 교원 채용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하 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다 른 시·도교육청이 실기시험의 공정 성을 높이기 위해 종목별로 평가위 원을 구성하거나 채점 기준을 명확 히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도내 교원 채용 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전산시스템 에 시험 점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체육 교사 2차 시험을 본 12명의 '실 기평가' 점수를 누락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 7일 오후 5시 해당 과 목 합격자 명단을 변경해 공고했다. 명단을 발표한 지 7시간 만의 일이 었다. 이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 았던 1명이 합격하고, 합격했던 1명 이 불합격 처리됐다.

'업무 상 실수'로 불거진 문제였 지만 이를 계기로 교사 임용시험 실 기평가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크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체육교과 등의 응시자가 치르는 실 기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 중 한 문제 로 '실기시험 평가위원 구성'이 거

제주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중등 체육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2차 시험

에서 현직 체육교사 5명으로 평가위 원회를 구성해 모든 종목(필수 육 상·체조·수영, 선택 농구·축구·배구· 배드민턴 중 2개)에 대한 평가를 맡 겼다. 2차 시험에 응시한 12명이 실 기평가를 마칠 때까지 동일한 위원 들에게 심사를 받는 구조다. 이에 응 시자 사이에선 평가의 전문성과 신 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가 나온다.

이는 강원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이 종목별로 실기시험 평가위원을 두는 것과 대조적이다. 강원도교육청 은 엘리트 선수 출신의 교사를 중심 으로 육상, 체조, 수영 등 종목에 5명 씩 평가위원을 뒀으며, 인천시교육청 도 허들, 수영, 농구, 배구 등 종목마 다 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3 ~5명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체 육교사여도 기계체조와 같이 전문성

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선 잘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평가위원을 둔다"고 했고,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는 "모든 응시자와 종목에 대한 심사 를 동일한 평가위원이 하면 일부 응 시자에 집중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 어 종목마다 다르게 구성한다"고 말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잣대가 실기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과제 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종목마다 평가위원을 달리 두진 않지만, 채점 기준을 명확히 해 공정성 강화에 나 서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체육과목의 실기시험의 경우 슛 자 세 등 움직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 가위원에게 글만이 아닌 동영상을 통해 모범답안을 제공하고 참고하도 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 제주도감사위, 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 "납품가 낮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 54건에 관계자 20명 조치 드림타워 오수문제도 제기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납품 금액을 낮춰 10억원이 넘는 계약을 특정 업 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상하수도본부 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감사 결과 를 11일 공개했다. 감사가 이뤄진 기 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9 월까지로, 계약과 예산·결산 운용, 상하수도 시설공사, 지하수 개발・이 용 및 관리 등에 대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54건(시정 19건·주의 18건·통보 15건·권고 2건)의 행정상 조치, 20명(훈계 3명·주의 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7건(감액·회수 2 억54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내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상하수도본 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관급자재(이중벽관 등)를 구 매하면서 28건·13억8100만원 상당 의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 에게 구매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상하수도본부는 납품요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납품요구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낮춰 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관련자 1명에 훈계 조치, 5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상하수도본부가 진행하는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 다. 유수율이 2016년 44.5%, 2017년 47.7%, 2018년 46.2%로 개선효과 미미하다는 것인데, 상하수도본부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만 집중한 나 머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송수관로 정비, 노후관 및 경연관 교체, 경연 지 설치 등 다른 사업은 소홀했기 때 문이라고 감사위원회는 분석했다.

이 밖에도 오는 4월 준공되는 제 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에서 하루 4647t의 오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 되지만, 이를 처리할 하수처리장의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감사위원회는 조속한 대책 마련을 상하수도본부에 요구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4·3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하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 예회복실무위원회는 4·3희생 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 기간 연장을 촉구하기로 했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지난 6일 제175차 4·3실무위원회 를 개최하고 정부차원의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 신고기간 연장을 촉구하 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제175차 4・3실 무위 회의는 4·3 72주년 추념 식을 앞두고 정부차원의 조속 한 심사를 촉구하는 한편 지 난 2018년 신고 접수된 희생 자 및 유족에 대해 사실상 마 무리 심사의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개인 적인 사유나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아직도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나 유족이 많다는 판단을 했으며, 미신고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데 의견 을 같이하고 제7차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 부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을 촉구하기로 했다. 고대로기자



"**얼마나 잡혔나**···" 11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해상에 설치된 덤장에서 어민들이 밤사이 잡힌 어획물을 건져 올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전면 재검토를" 시민단체 11일 녹지공간 조성 대안 제시 등 성명

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도로계획을

이들은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던 제주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포 구 도심지에는 5000명에 가까운 제주는 법정 보호 동식물의 서식지 어린이와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며

를 바라는 시민들이 11일 서귀포시 오폐수 처리 용량을 초과한 섬이 됐 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다"며 "그런데 1237억원의 도민 세 금을 투입해 서귀포 호근동에서 토 철회하고 녹지공원화를 추진해야 한 평동까지 4.2㎞ 구간에 왕복 6차선

특히 이들은 "도로가 지나갈 서귀

외국문화학습관, 학생문화원, 서귀포 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의 연간 이 용자는 27만명이나 된다"며 "이러한 서귀포의 교육문화 벨트에 거대한 6 차선 도로를 개설해 아이들이 보행 안전을 위협 당하고 소음과 매연에 노출되는 걸 반길 학부모와 교육자 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의 건강과 아이들의 안 전을 위해 필요한건 더 많은 녹지"라 며 "도시의 부동산은 역세권을 넘어 숲세권에 위치해야 그 가치가 커진 다"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오늘 강풍 동반 비··· 산지 최대 150mm

#### 순간 초속 20m 강풍 예상 제주공항 이착륙 차질 우려

12일 제주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 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2일 새벽 제주 도 산지와 남부지역에 호우예비특보 를, 제주도 산지에 강풍예비특보를 11일 각각 내렸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12일 오후 3시까지 비가 내리고 산 지의 경우 이날 오후 6시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강수량은 30~80mm로,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기청청은 이번 비가 제주도산지와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북부(제주시, 애월읍)와 서부(한경면 등) 지역에 는 상대적 내리는 양이 적어 지역별 편차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상청은 "12일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에 이르는 매우 강 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며 "제 주공항은 강풍과 돌풍성 바람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 우도・비양도・가파도 헬기 이 · 착륙장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우 도, 비양도, 가파도 등 도내 유인도 을 갖추게 된다. 서(사람이 사는 섬) 3곳에 응급환자 수송 목적의 헬기 이·착륙장을 조성 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도소방본부는 3곳 유인도 마무리했다.

서에 야간 이착륙에 필요한 항공 등 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올해까지 헬 기 이 ·착륙장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 이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도내 6 개 유인도서는 모두 헬기 이착륙장

앞서 도소방본부는 지난해 상·하 추자도와 마라도에 헬기 이착륙장을 보강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를 이상민기자

#### 를 파괴하고 과잉 관광으로 쓰레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

다"고 주장했다.

도로를 개설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무소 허운

# 허운스님께서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제38대 주지로 쥐임하신 것을 BBS 제주불교방송 운영위원들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제주불교신도의 자긍심 회복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불교 선진도시로 도약하도록 안정 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장 허운스님의 원력 발걸음에 저희 BBS 제주불교방송 운영위원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